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8

▶ 89회 예고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명을 받고 마투라 인근에 있는 아호강가산(山)으로 간다. 그곳에 은둔하고 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의 명을 거절하고 아쇼까라마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알린다.



아쇼까왕, 담마칙령 계속 공포

아쇼까왕은 보드가야에 있는 호위부대 조장에게 지시했다. 아쇼까왕의 지시란 추나르 사암 채석장으로 가서 가능한 한 석주를 많이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암 채석과 석주 공정(工程)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석주 한 개의 크기는 장대했다. 거대한 사암 덩어리에서 고작 석주 한두 개가 나오면 다행일 정도였다. 석주 한 개의 길이가 건장한 군사 걸음으로 22보쯤 되고, 밑둥지름이 성인 팔로 한 아름, 꼭대기 지름이 1보 반쯤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암 덩어리를 채석했다고 하더라도 또 석공의 작업장까지 운반이 녹록치 않았다. 수백 명의 군사나 젊은 장정들이 사암 덩어리를 통나무들 위에 올려놓은 뒤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끌고 와야 했다. 사암 덩어리가 작업장에 도착하면 수십 명의 석공들이 정으로 쪼아 석주 형태를 잡은 뒤 도구를 이용해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갈았다. 때문에 1년에 만들어지는 석주는 서너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의 의지는 강했다. 붓다에 대한 '믿음의 상속자'에서 '담마의 실천자'가 된 아쇼까왕의 석주 조성의지는 궁중창고의 금은보화가 텅 빌 정도가 됐지만 신하들 중에서 누구도 꺾지 못했다. 마힌다의 보고는 아쇼까왕의 마음을 더 격동시켰다.

"대왕님이시여, 작년에 만들어진 석주에 새긴 대왕님의 담마칙령은 저에게도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쇼까왕은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기억했다. 석주에 새긴 각문은 아쇼까왕의 열정과 의지에 다름 아니었다. 아쇼까왕이 두런두런 소리내어 외웠다. 한때 아들이었던 마힌다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됐을 때, 나는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처음으로 담마칙령을 석주에 새기도록 하였다.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백성들이 여러 면에서 담마로 인해 나아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복지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중략) 나는 모든 종교 교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경과 존경을 표해왔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왕님이시여, 대왕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여러 교단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하신 대왕님께서 작년에는 아지비까 교단에 성스러운 동굴법당 두 개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두 개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기증할 수도 있소."

아쇼까왕의 의지는 확고했다. 석주의 조성이 늦어지면 이미 해왔던 방식을 계속하리라고 결심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반반한 바위를 찾아서 담마칙령을 새겨왔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자신의 의지를 담은 담마칙령을 이미 정해둔 것도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담마를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마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마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담마를 공포하여 알려야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담마를 듣고, 담마를 따르게 되고, 그들 자신을 향상시키고, 담마를 받아들여 아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나는 담마칙령을 공포해 왔고 많은 붓다의 가르침을 시달할 것이다.〉

삐야다시는 왕위에 오른 아쇼까왕의 공적인 명칭이었다.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비로운 용모를 가진 이'란 뜻을 가진 말이었다. 그때 장로니 상가밋따가 들어왔다. 아쇼까왕이 딸인 상가밋따를 부드러운 말투로 맞았다.

"장로니여, 어서 오시오."

"다울리 언덕을 다녀왔습니다. 대왕님께서 칼을 버리시고 담마의 정복자가 되시겠다고 맹세한 다야강 강변도 걸어보았습니다."

"오, 상가밋따 장로니여. 그대들이 출가하여 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이오. 다만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가 없어 아쉬울 뿐이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께서 곧 아쇼까라마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오?"

"대왕님께서 석주나 바위에 담마칙령을 공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석장로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쇼까라마가 아직 완전히 정화된 것은 아니지만 강물이 흐르면서 스스로 맑아지듯 이제는 우뽀사타(포살법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힌다 장로도 그렇게 생각하오?"

"상가밋따 장로니의 말이 맞습니다만 아쇼까라마가 정화되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그러니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모셔와 하루 빨리 여법하게 정화하시오."

아쇼까왕은 마힌다에게 권유하기보다는 명령을 내렸다.

"예, 대왕님이시여, 당장 아호강가로 가겠습니다."

마힌다의 대답에 만족한 아쇼까왕이 상가밋따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다울리에서 무엇을 보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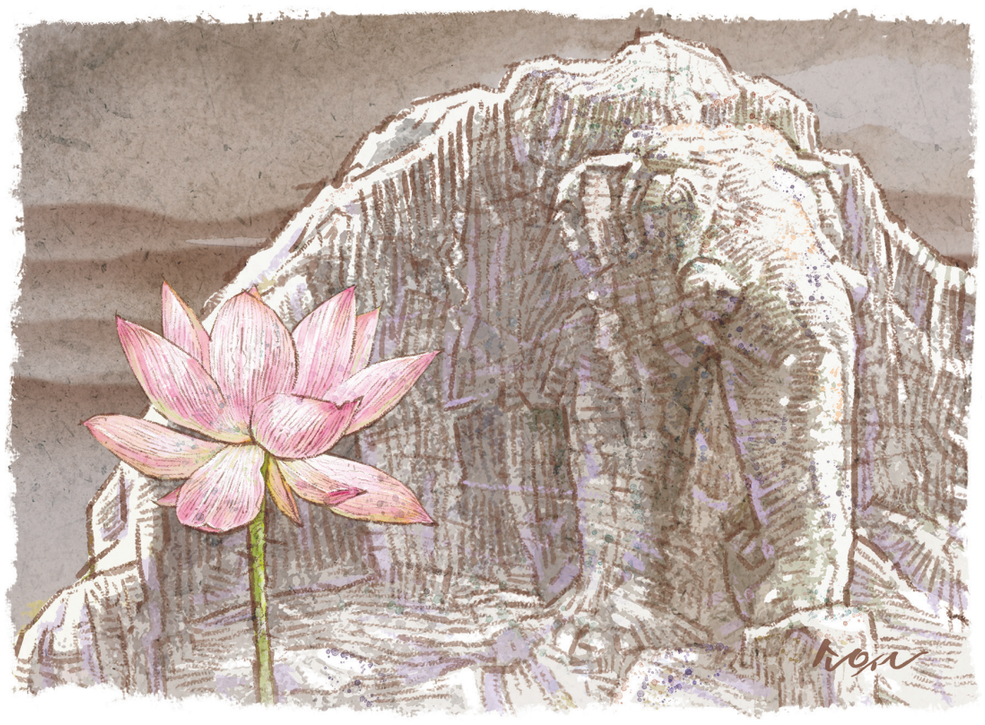
"대왕님께서 올해 지시하여 조성한 바위칙령을 보았습니다. 담마칙령들 중에서 불살생 계율이 돋보이는 바위 담마칙령이었습니다."

"담마의 실천자가 되려면 불살생부터 지켜야하지 않겠소?"

"대왕님이시여, 붓다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살생금지였습니다. 대왕님께서는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다울리 언덕의 바위에 담마칙령을 새긴 것은 재위 13년인 올해의 일이었다. 상가밋따는 다울리 바위에 새긴 담마칙령을 보고 나서야 아쇼까왕의 믿음을 확인했다. 다울리 언덕 바위의 각문은 다음과 같았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 담마칙령을 새기도록 명했다. 여기(마우리아국)에는 그 어떤 살아있는 생명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마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와 같은 사마자 집회에서 많은 악행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어떤 사마자는 허락한 것도 있다.〉



사마자(Samaja)란 왕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었던 축제인데, 아쇼까왕의 조부 짠드라굽따 왕과 아버지 빈두사라왕은 야생 황소, 코뿔소, 숫양 등의 싸움을 경연하는 축제를 매년 열었다. 이때 많은 동물들이 죽었으므로 아쇼까왕은 동물들의 싸움 경연대회 축제(사마자)를 금지하였다.

〈전에는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의 황실 요리실에서 매일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요리를 위해 도살되었다. 그러나 이 담마칙령을 공포한 지금에는 단지 3마리의 동물만이 도살되고 있다. 즉 2마리의 공작새와 1마리의 사슴이다. 그러나 이 1마리의 사슴조차도 정기적으로 도살되지 않을 것이다. 이 3마리의 동물들조차도 앞으로는 도살되지 않을 것이다.〉

또 아쇼까왕은 불살생의 계율을 넘어 백성들과 동물들을 위한 의료 진료소를 짓게 하고, 약초밭 조성과 목마른 행인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어 그늘이 드리워지는 시원한 쉼터를 만들게 했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의 왕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즉 쪼다, 빵디야, 사띠야뿌따, 그리고 저 멀리 땅바빵니(스리랑카)까지, 그리고 요나(그리스) 왕에게까지, 앙띠요까(시리아) 왕의 이웃 왕들에게까지, 어디든지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두 가지 종류의 의료 진료소를 짓도록 하였다. 즉 사람과 동물을 위한 의료 진료소였다.

사람과 동물에게 적합한 약초를 구할 수 없는 곳은 어디든지 약초를 가져다가 심도록 하였다. 어디든지 약초 뿌리나 약초 열매를 구할 수 없는 곳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심도록 하였다. 사람과 동물들의 이익을 위해 길을 따라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게 하였다.〉

마힌다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마하마따들 중에서 올해 담마마하마따를 처음으로 임명하시었습니다. 선발된 그들은 대왕님의 담마 정책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고, 담마를 증진하고, 담마를 실천하는 담마 대신(大臣)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렇소. 나는 담마마하마따의 임무를 규정하기 위해 바위에 칙령을 또 새기게 했소."

"대왕님의 담마칙령에는 붓다라고 명기한 각문이 드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모든 종교의 수행자들이 나의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오. 그들도 자기 절제와 청정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오."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담마마하마따(Dhammamahamata)의 역할을 규정하는 담마칙령은 다음과 같았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와 같이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무언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왔다.

나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들 후의 대대손손 대를 이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만일 그들이 나의 모범을 따른다면 그들 또한 선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잘못을 짓는 것이리라.(중략) 담마마하마따는 하인과 귀족, 브라흐민과 장자들, 가난한 사람과 노인들, 담마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 삶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복지와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일한다.

담마마하마따는 감옥의 죄수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일하며 또한 그들의 석방을 위해 일한다. 만일 담마마하마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면 이런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해 일한다.(하략)〉

상가밋따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다울리 언덕 바위의 담마칙령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저는 바위에 양각된 코끼리 머리를 보고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코끼리의 동그란 두 눈은 또렷하고, 콧속까지 깊이 판 코에서는 곧바로 다야강의 강물이 뿜어져 나올 듯했습니다."

"상가밋따 장로니여, 어째서 바위에 코끼리 머리만 조각하였겠소?"

아쇼까왕이 뜻밖의 질문을 하자 상가밋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마힌다가 대신 대답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만이 코끼리 몸을 꺼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끼리 몸까지 꺼내 볼 수 있는 자는 대왕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마힌다의 대답에 소리 없이 웃었다. 그날 아쇼까왕의 명을 받은 마힌다는 바로 강가강 나루터로 내려가 아호강가로 가는 상선을 탔다.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계속〉

